

교사들과 교육정책 길 찾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고교 교원들과 정책간담회... 교육과정 등 청취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김제 포람 세미나룸에서 고등학교 교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학력신장·대입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에 교사들은 과목별 출결 처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학기별 입력 등 행정적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한 수업과 평가 영역에서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 적용과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사의 준비 부담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 교사들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 맞춤형 연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순공캠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김제 포람 세미나룸에서 고등학교 교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맞춤형 대입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대입지원관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수업과 평가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등이 보다 확대되길 희망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학생의 성장과 배움의 중심이 되는 학교 교육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원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해 학생에 ‘특별재난 장학금’ 긴급 편성

전북대, 학생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규모는 피해 학생 수에 파악 후 결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해 '특별 재난지원 장학금'을 긴급 편성했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자연재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

정적인 학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장학금 지급 규모는 피해 학생 수에 파악 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수해 피해를 입은 재학생이며,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특별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학생지원과(063-270-2163)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된 서류와 피해 정도, 학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도내 고등학교 2학년 28명이 '2025 글로벌 브릿지 캠프' 일환으로 미국 워싱턴주로 출국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글로벌 브릿지 캠프’... 도내 고교생 28명 참가

링컨고서 영어 집중수업... 문화·교류활동도 전개
마이크로소프트·보잉사 등 방문 진로체험 기회도

'2025 글로벌 브릿지 캠프'가 이달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미국 워싱턴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2학년 28명이 참여하는 이 연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워싱턴주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약에 따른 맞춤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미국 타코마시에 위치한 링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주간

영어 집중수업, 기관방문, 문화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연수단은 현지 고등학교생들과 함께 영어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 또한 방과후 및 주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워싱턴대학교, 보잉사, 시애틀 총영사관, 워싱턴주 정부청사 등을 방문해 다양

한 진로 탐색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시야를 넓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운트레이니어 국립공원, 스페이스나들 등에서 생태환경과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전북교육청이 타코마교육청과 '글로벌 브릿지 캠프'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 링컨고등학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캠프를 기획해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직무교육형 글로벌 인턴십 일본서 진행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글로벌 인턴십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5 직업계고 직무교육형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직업계고 학생 45명이 참여, 원예조경, 전기전자, 기계가공, 재무회계, 조리제빵, 애견미용, 헤어미용 등 7개 직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일본의 공업대학, 치바대학교, 아비노테 조리전문학교, 도

쿄글로벌 비즈니스전문학교 등에서 현장실습과 실무교육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감각과 진로설계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 '직무교육형'으로 운영,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스스로 투명도·채광 조절 가능한 윈도우 기술 ‘주목’

전북대 정광운 교수 연구팀 등, 외부환경 자동 반응 ‘스마트 윈도우’ 개발

전북대학교 공분자나노공학과 정광운 교수 연구팀이 한국자동차연구원 윤원진 선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최유진 선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차세대 스마트 윈도우 소재를 개발했다.

지난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기존 액정 기반 스마트 윈도우는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력 소비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인가 전압이 요구되어 상용화



정광운 교수



윤원진 선임연구원



최유진 선임연구원

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자외선(UV) 반응성 물질을 열방성 액정에 소량 혼합해 빛과 온도 변화에 따라 스스로 투명도와 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차세대 스마트 윈도우는 자외선이 강하거나 기온이 높을 경우

자동으로 빛을 차단하고, 자외선이 없고 온도가 낮을 때는 자연 채광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별도의 전력 공급 없이도 작동 가능해 에너지 절감형 윈도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19, JCR 상위 4.2%) 2025년 7월호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통해 기존 스마트 윈도우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건축물과 미래형 모빌리티 등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기술을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오선택 프랑스 앙국 감독

전북교육청 ‘명예교사’ 위촉



오선택 프랑스 앙국 국가대표팀 감독(사진)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명예교사가 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6일 프랑스 스포츠 과학 연구소(INSEP)를 방문해 오선택 감독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INSEP는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핵심 기관으로 참가 학생들은 과학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과 엘리트 선수 지원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최신 스포츠 과학과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배웠다.

특히 해외에서 활약 중인 체육 리더가 도내 학생선수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 감독을 전북교육청 명예교사로 위촉했다.

오 감독은 “고국의 학생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올림픽 등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오 감독은 스포츠와 영어 교육, 글로벌 진로 설계, 지도자로서의 커리어 확장 등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또한 INSEP 식당에서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들과 식사를 하며 스포츠 문화와 훈련 방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엄희정 특임교수가 지난 20~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달크로스 교수법 워크숍'에 초청, '한국형 리드믹 교육'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형 리드믹 교육’ 국제무대에 소개

전북대 엄희정 특임교수, 상하이 국제 교수법 워크숍 초청 강연

전북대학교 엄희정 특임교수가 지난 20~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달크로스 교수법 워크숍'에 초청, '한국형 리드믹 교육'을 세계에 알렸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달크로스 상하이 센터가 주최하고, 국가 3A급 관광지로 지정된 내부문화박물관에서 개최됐다. 달크로스 교수법은 신체 리듬을 기반으로 감각과 정서를 통합하는 예술 교육법으로, 이번 워크숍은 해당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교육 행사로 주목받았다.

엄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예술적 감각을 통합하는 교육 모델'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국형 리드믹 교육의 철학과 실현 사례를 공유했다.

워크숍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호주, 중국 등 5개국의 교수진과 100여 명의 국제 학생이 참여했으며, 엄 교수는 한국 교육의 창의성과 융합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엄 교수는 “달크로스는 단순한 음악 교수법이 아니라, 삶의 감각을 일깨우는 통합적 예술 교육”이라며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리드믹 교육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 워크숍의 연장선에서 27일 참석 교수진 일부가 한국을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운영 중인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교원 양성 첫 연수

28~30일 국립군산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30일 3일간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문화 개발 선도교원 양성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래형 교육 전환의 핵심 도구인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교과별 평가문화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교원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서·논술형 평가는 단순 지식 암기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표현력·문제해결력 등 고차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수는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에서 총 3개 분반으로 구성,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30명이 참여한다.

앞서 참여 교사들은 지난 7월 10일 온라인 사전연수 이후 2주간의 개별 문항 출제 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대면 연수는 △문항 개발 △재검기준 설계 △피드백 구성 등 실습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수 후에는 도내 '학생평가 현장지원단'으로 활동하며 평가 혁신을 위한 공유와 확산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수능체제 평가문화 개발 전문가 연수

28~30일 국립군산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30일까지 국립군산대학교에서 '2025년 수능체제 평가문화 개발 전문가 양성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박 3일 합숙형 연수로 운영함으로써 연수의 밀도와 실효성을 높이교자 했다.

연수는 4개 영역 11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17개 분반에서 152명의 교사가 참여한다.

참여 교사들은 지난 7월 10일 온라인 연수로 시작해 2주 간의 개별 문항 출제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대면연수에서는 출제한 문항을 집중 검토·수정하는 실습을 통해 수능 수준의 문항을 개발한다.

분반은 연수생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분반별로 전문 강사 2명이 배치된다.

강사진으로는 수능 연계교재 수석 집필진, 국가 단위 시험출제 팀장 및 경력자 등 영역별 교수와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 34명이 참여한다.

/장은성 기자